

옛 사진 속의 전주 백년

홍성덕 || 전북대 박물관 학예사

〈목 차〉

1. 사진은 기록이다.
2. 사진 속 전주
3. 사진의 수집은 역사의 복원이다.

1. 사진은 기록이다.

사람들이 사진에 목말라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고, 그 생각은 새롭게 재해석된다. 재해석된 내용들은 연구자와 조사자들을 통해서 활자화 할 수 있고 활자화한 자료들은 우리들의 소중한 역사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쓰인 역사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나라의 역사와는 맛과 멋이 다르다. 정사 중심의 역사교육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국가의 통치행정이 지방을 거쳐 어떻게 백성들에 전달되었고, 제도적 틀 속에서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 자료는 역사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재해석의 사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진은 더 이상 영상기록이나 예술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라는 절대적 시기구분에 있어 사진은 역사적인 사료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진이 들어온 것이 1870년대라고 하니까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적 상한은 130년 정도이다. 즉 근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의 역사풍경을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현대의 출발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파괴된 한국의 문화와 역사문화자산들을 복원하는 데 사진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사진 속 전주

전주에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1894년 전후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었으며, 사진 속에 나타난 전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10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옛 사진을 통해서 전주라는 도시를 읽어낼 수 있는 몇 가지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전주의 도시공간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전주의 중심축의 변화를 읽어 볼 수 있다. 사진은 촬영할 수 있는 자에 의해 기록된다. 때문에 사진의 생산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기도 하고 촬영자에 의해 그 공간과 촬영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주라는 도시를 찍기 위해서 전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곳들을 생각하겠지만 현재 전주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중바위 꼭대기가 가장 좋을 것이다. 동고산성에서 치명자성당으로 내려가는 능선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는 바위 정상이 전주를 조망하고 이해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산불 감시 초소 옆에서 숨 고르며 내려다 본 전주는 천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곳에서 본 전주는 전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전주'라는 지명이 생기고, 후백제의 도읍지로서 조선왕조의 본향지로서 전주가 시공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사진 속에 나타난 전주의 공간적 영상은 것처럼 높게 오르지 않는다. 전주를 굽어다본 수많은 사진들은 사진 지금은 산이라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언덕에서 찍은 것들이다. 다가산이 첫째이고, 초록바위가 둘째이며, 오목대가 세 번째이다. 옛 사진 기술로 담아낼 수 있는 전주의 규모가 그 정도의 높이면 충분했을 터이니 어찌

면 당연한 얘기 일 것이다. 도시가 조금씩 커져가면서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그보다 높은 완산 봉우리나 기린봉, 중바위, 남고산 등으로 옮겨지지만 지근거리의 도심은 여전히 세 곳이 유효하다.

도시를 조망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사진 1. 1920년대 전주 시내 모습. 중앙에 동쪽으로 뻗어 있는 도로가 웨딩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사진 2. 전주본정(本町通)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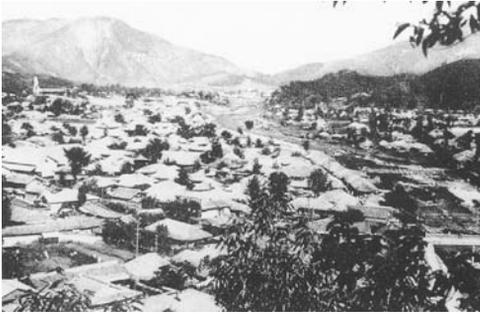
그중 일제강점기 이후 도심을 촬영한 모습은 주로 다사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수점의 사진들이 대부분 다사공원 정상에서 다이쇼도

오리(大正通, 현 웨딩거리)를 찍은 것들이다. 가로망의 사진은 때문에 다이쇼도오리가 중심이 된다. 그 이전에 촬영된 거리모습은 혼마치도오리(本町通, 현 차이나거리)였다. 1912년 발간된 『금난부』에 게재된 사진은 일본인들이 처음 들어와 정착했던 서문에서 남문으로 이어지는 성벽을 따라 개통된 도로의 모습(〈사진 2〉 참조)이었다.

〈사진 1〉은 다가공원에서 지금의 웨딩거리 쪽을 찍은 것이다. 사진 중앙에 위로 곧게 뻗은 길이 중앙동 우체국에서 천변으로 내려오는 길이며 길 중간에 보이는 빌딩은 위치로 보아 하카다야(博多屋, 현재 진미반점)가 있었던 건물로 여겨진다. 당시 하카다야(博多屋)이라 해서 유명한 우동집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 건물은 현재 남아 있는 일제시대 전주부의 건물 중에 가장 크고 예쁜 건물이다. 사진이 촬영된 시기는 오른쪽 상단에 도청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20년대 후반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찍힌 전주시내의 인상은 나무가 많다는 것이며, 초가집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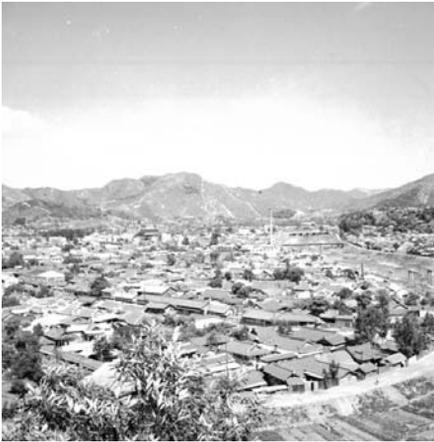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전주라는 도시가 양반의 고장이기 때문에 전주시내에는 기와집이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일제시대의 전주는 초가집 투성이다. 기와집이라고는 관청(전라감영, 전주부영, 객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상인들이 살던 곳 뿐이었으며, 기와집촌을 이루고 있는 한옥마을은 1920년대 이후에서야 형성된 근대 도시 한옥들이었다. 때문에 전주시내에는 초가집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 다가산 정상에서 전주천 상류 쪽을 촬영한 〈사진 3〉 속의 전주 집들 역시 대부분이 초가집이고 집 주위에는 나무들이



〈사진 3. 1920년대 전주 시내 모습. 다가산에서 다가동, 완산동 쪽을 찍은 사진으로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완산교이다. 왼쪽 멀리 전통성당이 보이고 서천교 자리는 돌다리였음을 알 수 있다.〉

빠짐없이 심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는 오른쪽 하단의 완산교가 1922년에 세워진 콘크리트 다리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역시 1920년대 후반의 것이다. 거의 동시대에 찍은 것으로 『일본 지리대계』에는 좌우



〈사진 4. 1970년대 전주 시내 모습.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모두 바뀌었으며 서천교를 세우기 위한 교각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다.〉

도시화의 진행은 삶의 공간을 다양하게 바꾸어 놓았다. 〈사진 4〉은 1970년대 중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사진 3〉와 동일한 장소에서 약간 도심 쪽의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면 일제강점기와는 달리 전부 기와집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옥 사이의 나무들은 여전히 도시의 더위를 식혀

다가산은 한 때 연인들이 올라가 전주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포토포인트였다. 1960-70년대 다가산과 오목대 정상은 정상부에 큰 나무들이 없어서 도심을 병풍삼아 사진 찍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둘째, 전주라는 도시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호남의 수부’ ‘농도’와 ‘경제적 풍요로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남문시장에서 서문시장으로 펼쳐진 전주의 시장 풍경은 전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주사람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규모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50년 낙후라는 꼬리표를 달고 반세기를 지내온 요즘 사람들에게는 먼 옛날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황현이 지은 『매천야록』에는 전주를 우리나라 3대 시장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 전라도가 살기 좋은 곳이고 먹을 것이 풍부한 고장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현실에 대한 위안인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면은 많지 않다. 어쨌든 분명 전주가 물산이 모이는 고장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물산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인 전주에서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향유력이 높아졌을 것이고, 문화 향유력이 소리, 음식, 서예 등등 전주의 문화적 코드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나 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조선시대 전주라는 도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만 있을 뿐 증거는 없는 셈이다.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고 있는 지금도 그것은 여전하다.

다만, 『전주부사』에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 특히 장터에 관한 언급에 의하면 전주에는 4개의 성문 밖에 정기적으로

장이 섰다고 한다. 남문밖 시장은 2일장으로 생활용품과 곡식을 거래하는 장터가 섰으며, 동문밖 시장은 9일장으로 한약재와 특용장물의 장터가, 서문밖 시장은 7일장으로 소금, 깨와 같은 양념과 어물이, 북문밖 시장은 4일장으로 비단 같은 포목과 잡곡을 거래하였다고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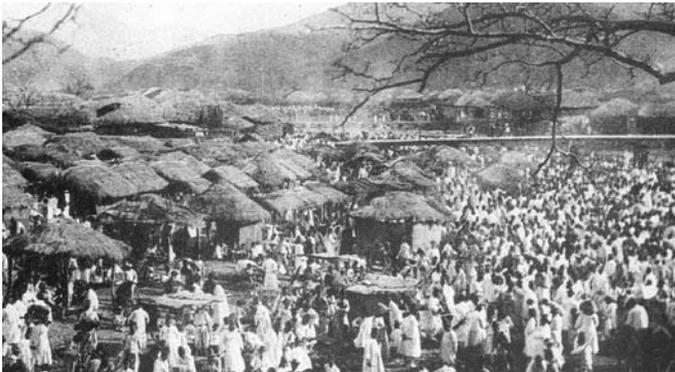


〈사진 5. 1910년대 남문 밖 반석리 시장 모습. 사진의 왼편이 교동 쪽이며, 오른쪽은 싸전다리 건너 옛 반석리에 해당한다. 천변을 사이에 두고 양쪽 천변에 남문밖 장터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천에 놓인 다리를 중심으로 구별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싸전다리는 말 그대로 싸전이 중심이었고, 매곡교 부근은 쇠전 강변이라 해서 우시장이 열렸으며, 서천교는 설대전 다리라 해서 담뱃대 장수들이 좌판을 깔았고, 완산교는 소금장수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소금전다리라 불리웠다. 이외에도 성 안에는 상설 점포들이 들어서 있었으며, 거래품목들은 유기, 주석, 은제품 등이었다. 결국 성 밖의 경우 먹거리 중심의 시장이었으며, 성안

시장은 수공예품 등을 파는 상점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전주가 물류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중심이 무슨 물품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전해져 오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사실을 엿볼 수는 있다. <사진 5>은 1900년대 초엽의 남문 밖 반석리시장 모습이다. 당시의 성내 인구가 1만 명을 조금 넘었으므로 시장에 몰려나온 사람들로 볼 때 단순히 전주성내 사람들이 먹거리를 사고팔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세어 볼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다. 이런 규모의 장터가 컸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주의 경제력을 엿보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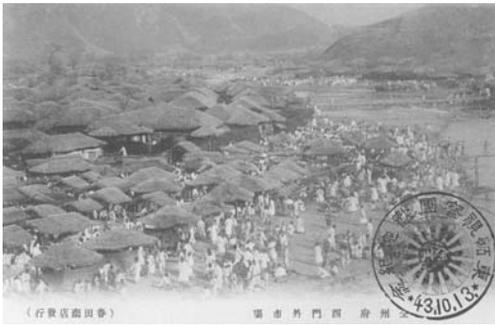


<사진 6. 1920년대 완산교 부근의 장터모습이다. 완산교 밑에 장이 선 것을 촬영한 것으로 기록에 의한다면 소금을 주로 파는 가게들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사진으로 본 전주서문교회 100년』(1994)에 실려 있는 이 사진의 설명을 보면 “멀리 기린봉이 보이고 좌측은 향교가 있는 교동부근이며, 우측의 많은 인파가 있는 곳이 현 남문시장 자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먼저 좌측(향교)와 우측(남문시장)은 천을 가운데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의 왼쪽이 교동쪽

이라면, 사진 속 우측 시장은 싸전다리 건너편으로 옛 반석리(현 전주천 좌안도로)에 해당하므로 남문밖 시장의 건너편에 해당한다. 보통 옛 사진을 볼 때에는 장소가 어디며,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몇 가지의 정황으로 보아 이 사진은 초록바위에서 한벽당쪽을 향해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럴 경우 남문밖 시장 앞 전주천 건너편에도 큰 장터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 6〉 역시 풍남제전위원회에서 발간한 『전주100년 풍물사진집』 1920년대 남문밖장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역시 틀린 설명이다. 이 사진은 정확하게 현 완산교 밑 시장을 촬영한 것이다. 오른쪽 중앙에 반듯하게 보이는 선이 바로 완산교이며, 완산교 너머 낮은 다리는 매곡교이다. 오른쪽 나뭇가지 끝 부분에 연결된 산봉우리가 곤지산이며 나뭇가지에 가린 뒷 산은 투구봉에 해당된다. 사진에



있는 완산교의 모습은 1922년에 세워진 콘크리트 다리로 여겨지며, 천변에는 전주천의 제방이 쌓여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진은 1920년대 완산교 밑 시장의 풍경이다.

〈사진 7. 1900년대 서문밖 시장. 하루다상점에서 발행한 전주부 엽서로 1911년 10월 13일 동양척식주식회사 시찰단 환영 기념 스탬프가 찍혀 있다.〉

〈사진 7〉은 서문밖 장터의 모습이다. 동학농민혁명 때에 농민군이 장사치로 위장해서 전주성에 침투했다던 바로 그 시장의 모습이

다. 메이지 43년 10월 13일, 동척시찰단 환영기념 스탬프가 찍힌 것으로 보아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1911년 이전으로 1900년대 전주 서문밖 시장의 모습이다. 정확하게는 서문밖에서 완산교에 인접한 곳으로 여겨진다. 우측 중앙 끝에 있는 다리가 완산교이며 상류쪽 낮은 다리가 매곡교이다. 서문밖 시장의 천변가에 있는 초가의 상점들은 가설 점포로 여겨지며 역시 제방은 쌓여있지 않다.

셋째, 전라감영의 도시로서 전주라는 공간에 대한 세세한 확인과 인식이 가능하다. 전라감영의 복원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풍락헌에 대한 발견 역시 감영복원에 맞물려 있다.



〈사진 8. 1912년 이전 객사모습〉

먼저 1911년경에 찍은 “풍패지관”의 모습을 보면 그 동안 객사(풍패지관)의 동쪽 날개 건물(동익랑)이 파괴된 시기에 대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8〉은 『금난부』에 실려 있는 것이다.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당시에만 해도 전주객사는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1907년부터 시작된 성벽철거령에 따라 전주성 성벽은 1914년까지 지속적으로 철거되었다. ‘근대적’ 도시계획을 추진한다는 핑계로 일본은 풍남문과 북문(국민은행 뒤 오거리)을 잇는 일직선의 도로를 개설하여 ‘T’자형 도시구조를 파괴하고 전주성의 가장 핵심기관인 객사의 동쪽 날개건물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금난부』의 객사 사진 역시 동쪽 날개 건물을 허문 직후

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12년 신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한 책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은 아마도 1911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순한 시기 추정만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 객사의 동쪽 날개건물을 허물었던 시점에 대한 기존 연구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사진 9. 전라북도 물산진열관으로 사용된 객사모습〉



〈사진 10〉

그리고 일본인들의 객사 파괴가 동쪽 날개건물을 없애버린 것은 물론 객사 주위의 모든 부속 시설들까지 깨끗하게 지워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파괴와 훼손은 멈추질 않았던 것이다. 『전주부사』에 의하면 일본은 객사 마당에 벚꽃을 심고 1921년 이후 전라북도 물산진열소(〈사진 9〉, 후에 산업장려관)로 사용하는 한편 연회장으로 여러 차례 사용하기도 했다. 1937년 산업장려관이 이전한 뒤 전라북도 교육참고관이 설치되었고, 그 사이에 남문의 서쪽에 있던 종각을 이전하고 정원에는 대포와 3층 석탑을 두었다고 한다.

바로 이 3층 석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사진 10) 당시 전북공립



〈사진 11〉

고등여자학교 여학생들이 놀러와서 찍은 사진을 보면 땅바닥에 시멘트로 기초를 만든 뒤 기단부를 대리석으로 덧씌우고 그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올려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3층 석

탑을 온전하게 옮긴 것도 아니고 기단부를 파괴한 채 윗 부분만 객사 앞으로 갖다 놓은 것이다. 1922년 익산 왕궁에서 옮겨온 이 탑을 지금은 덕진공원으로 옮겨져 있다.(〈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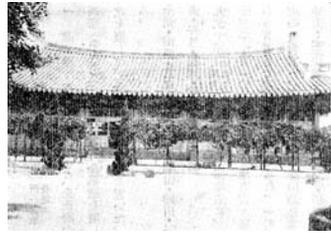
객사의 핵심 기능은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정점에 있는 것이었다. 중앙의 관리들을 접대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궐패(闕牌)를 모시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망궐례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 조선시대의 통치지배시스템을 상징하는 의례행위였기 때문이다. 일본에 의한 객사의 파괴는 단순히 전통문화의 망실이 아닌 조선시대의 지배구조를 와해시키려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99년 동쪽 날개건물의 복원은, 그것이 옛 모습 그대로의 복원은 아닐지라도(「객사서헌기(客舍西軒記)」에 의하면 서쪽 건물이 동쪽 건물에 비해 낮고 좁다고 하였다.) 우리의 전통적 대민행정의 복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감영의 복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진은 포정루(〈사진 12〉)와 전라감사의 집무실이었던 선화당(〈사진 13〉) 정도이다. 〈사진 12〉는 현재 도청 동쪽 출입구 쪽에서 도청본관과 중부경찰서 방향

을 찍은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정면 3칸 측면 3칸 정도의 누각이 바로 포정루이고, 좌측에 있는 2층 누각은 풍남문이다. 포정루의 위치는 현 도청건물과 중부경찰서 사이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세워진 도청(〈사진 14〉)의 출입문이 위치해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그 자리에 홍보탑이 서 있다. 전주성의 정문인 풍남문을 통해 들어오면 바로 포정루 앞을 지나 객사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의 도로가 중심 도로인 썸이다.



〈사진 12〉



〈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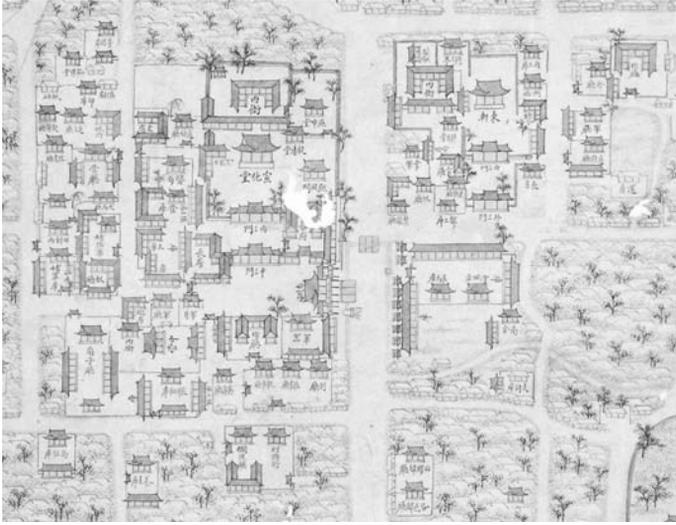
〈사진 14. 전북도청〉



〈사진 15. 다가공원 비석군〉

이 사진에서 우리가 오버랩할 수 있는 것은 포정루 앞 도로 건너편에 서 있는 비석들이다. 전주에서 비석들 하면 떠오르는 곳은 다가공원이다. 다가공원 광장 산자락 밑에 일렬로 늘어섰던 비석들, 예전에는 천변의 뚝을 따라 길게 늘어 서 있었던 비석의 원 위치가 바로 포정루 앞이었던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 곳에 흩어진

것을 다가공원으로 모아 놓은 것은 1954년 4월의 일이다.(<사진 15>) 이 비석들은 관찰사, 별장 등의 선정비들이다.



〈지도 1. 전라감영〉

지도 1을 보면 이 선정비들에는 각각의 비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선정비들과 마주한 포정루에는 신문고를 매달아 놓았었다.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어 임금의 선덕을 기리라는 의미에서 또한 도내 수령들의 포폄(수령의 인사고과)을 사언절구로 요약해서 걸어 놓기도 했다. 백성들이 이 문을 지날 때에는 관리들의 선정(善政)을 바라는 것이었지만, 감영에서 이 문을 나갈 때에는 모든 길로 통한다는 팔달(八達)이란 편액이 붙어 있었다. 즉 모든 백성과 관리들이 이문을 지나 사방팔방으로 선정을 널리 퍼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주의 중심도로인 팔달로 역시 사통팔달이라는 보편적 의미와 함께 전라감영의 출입문이었던 이 포정루(팔달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사진 13〉은 ‘임금의 덕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한다(宣上德 而化下民)’는 선화당의 모습이다. 세간에 전라감영의 복원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시각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면 7칸 규모로 약 78평에 달하는 큰 건물이 전주성 내에서만 따지자면 임금의 궐패(闕牌)가 모셔져 있는 객사 다음으로 큰 건물인 썸이다. 몇 차례의 화재 끝에 사진 속에 있는 건물이 세워진 것은 1804년으로 관찰사 정민시가 증건한 것이다. 1921년 11월 그 기능을 도청 건물로 물려준 선화당은 해방 이후까지도 역사의 질곡을 그대로 담아내 보여주다가 1951년 도청 무기고 폭발에 의한 화재로 없어져 버렸다.

전라감영의 복원 문제가 이야기될 때나, 전라감영에 대한 숯한 이야기들을 쏟아 낼 때 빠짐 없이 거론되었던 것이, 현존하는 건물이 있느냐의 여부였다. 복원의 초점이 전라감사의 집무처였던 선화당에 집중되고 있고, 현존하는 사진자료 역시 선화당과 포정루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주판관의 집무소였던 풍락헌은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우리들이 흔히 전라감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라도를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옛 전라북도청 일원과 객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반면 전주부는 전주부윤이 임명되어 다스렸지만,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대부분은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칫 전주부를 다스리는 행정기관이 전라감영 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주부 통할 행정기관은 이아(貳衙)라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실제 전주부의 통치업무는 전주판관(全州判官)이 담당하곤 했다. 관찰사가 전라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라도 행정을 맡아보아야 했기 때문에 판관은 감영에서 관찰사의 공백을 메우면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

기도 하고, 때로는 관찰사의 전횡을 견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라도와 같이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할 경우 판관이 실질적으로 전주를 통할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공간은 현 전주우체국 사거리의 남동쪽 블록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있는 방형구역과 구 전북은행 본점이 있는 블록을 포함한 약 7천여 평이었다.



〈사진 16. 풍락헌(1910년대 전후)〉

전주판관이 근무하던 건물은 풍락헌(豊樂軒)이라 하였으며 현 중소기업은행 자리에 위치하였다.

〈사진 16〉은 바로 풍락헌 건물의 사

진이다. 이 사진에는 음순당(飲醇堂)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에 보이는 풍락헌은 전면 7칸의 팔작지붕 형식으로



〈사진 17. 전주군청으로 사용된 풍락헌(1920년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좌우 1칸의 크기는 중앙 5칸에 비해 기둥 사이가 약간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 1명과 하얀 두루마기 차림을 한 5명과 바지저고리 차림의 2명 등 총 8명의 모습이 보이며 1920년

대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순당이란 편액은 1901년 당시 전주 군수였던 취송(醉松) 이삼응(李參應)이 제작한 것으로 조주승이 썼다. 전주판관의 설치 때부터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풍락헌은 1758년 판관 서노수가 개건하였고, 1890년 화재로 소실된 뒤 1891년 판관 민치준이 중창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 이후 이 건물은 전주군청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모습이 <사진 17>이다. 1895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전주부가 폐지되고 전주군이 설치되면서 전주군청으로 사용될 당시의 모습이다. <사진 16>과는 달리 서남쪽 모퉁이에서 촬영된 풍락헌은 전면 7칸의 건물이며 왼쪽 처마 끝에 덧 댄 가건물이 있으며, 도로 정비에 의해 전면 부의 마당이 잘려나가고 나무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전주군청이 존속한 것은 1895년 행정구역 개편이후 1935년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할 때까지이다. 즉 <사진 17>의 전주군청은 1981년 민치준이 중창한 뒤 1934년 새로운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존속했던 풍락헌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1934년 봄 풍락헌은 매각되어 구이면 덕천리(옛 태실리) 전주유씨 제각으로 옮겨졌다. 옮겨질 당시 음순당 현판은 떼어 내어 옛



객사 내에 두었다고 하나 현존 유무를 할 수는 없다. 구이 태실부락으로 옮겨진 풍락헌은 1992년 1월 7일자 전북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사진 18. 구이로 옮겨진 풍락헌(전주유씨 제각)> 다시 알려지게 되었

다. 전주유씨 제각으로 현존하고 있는 풍락헌의 모습이 <사진 18>이다. 그런데 비교적 단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주유씨 제각(풍락헌)의 모습은 앞의 <사진 16>과 <사진 17>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전면이 7칸이 아닌 6칸이라는 점이다. 좌우 끝 1칸의 크기가 중앙의 4칸 크기보다 기둥 사이가 좁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지만 중앙의 칸수가 1칸 줄어든 점이 틀리다. 기둥 초석과 초석 사이의 모양 등은 <사진 16>과 동일하다. 이러한 변화가 왜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적어도 사진으로만 본다



<사진 19. 구 전주시청(1960년대)>

면 풍락헌을 이진하였다는 전주유씨 제각이 풍락헌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진하면서 칸 수를 줄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1934년 새로이 지어진 전주

부청사는 2층 건물로 735평의 대지에 연건평 150평의 규모였으며, 해방이 될 때까지 존속하였고, 후에 전주시청((사진 19))으로 이전되었다.

넷째, 문헌 전주의 역사를 되찾아 볼 수 있었다. 전주신사에 대한 술한 사진들을 통해서 일제시대 30년 넘게 전주사람들을 통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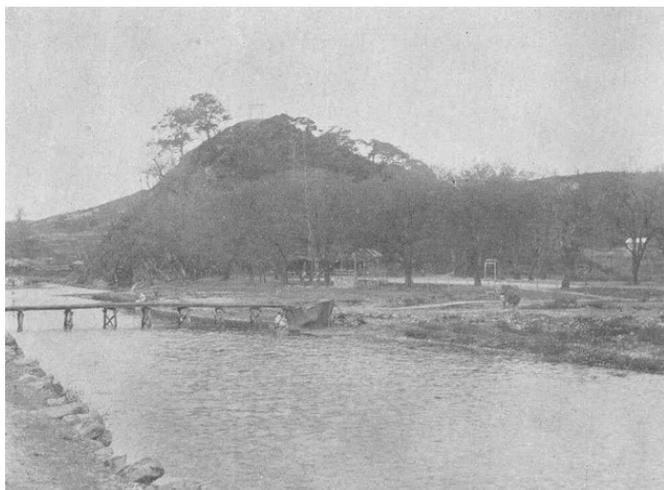
왔던 공간으로 철저히 잊혀진 전주신사의 모습과 지금도 남아 있는 일제의 잔영들에 대해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벽루의 요월대 복원이 잘못되었던 것이나 풍남문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문화적 환경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게 해준다.

지금은 잊어진 과거의 치욕이긴 하지만, 서울 남산공원이나 부산 용두산 공원 그리고 군산의 월명공원 등 도심부에 있는 공원들은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도심 속 공원에다 산 정상부까지 도로가 있고 광장이 있고, 그 키워드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한 이후 일선동조(日鮮同祖),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신사(神社)'이다. 신사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공로자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우리가 슬하하게 다녔던 다가공원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주사람들을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신사가 세워진 곳이 다가산의 정상이고 그곳에 오르는 길을 '참궁로(參宮路)'라 해서 잘 닦아 놓은 것이다. 일제시대 다가교를 대궁교(大宮橋)라 부른 것도 신사에 참배하기 위해 건너는 다리였기 때문이다.

전주에 신사가 세워진 것은 언제일까? 『전주부사』에 의하면 일본의 강점 직후 몇몇 일본사람들이 목조의 도리이(鳥居)를 다가산 정상에 세우고 요배소(遙拜所)를 만들었다고 한다. 전주에 일본인이 처음 들어온 것은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직후로 1896년 경이며, 그들이 주로 거주한 곳이 바로 서문밖이었다. 따라서 다가산은 일본인들 거주지에서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요배소 설치장소로는 제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타의 다른 도시들을 보면 신사

는 그 도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졌었다. 그렇다면 전주의 경우 오목대가 최적지였을 것이지만, 오목대는 이성계가 대풍가를 불렀다는 곳이고 선대 전주이씨의 세거지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신사건립지로 낙점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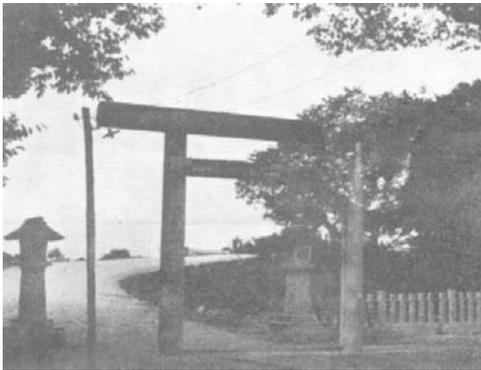


〈사진 20. 1911년경 촬영된 다가산의 전경, 산 정상부에 목조의 도리이가 보이고 있으며, 당시 촬영된 다른 산들과는 달리 숲이 울창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에 보인는 다리가 바로 사마교이며 지금의 다가교 보다 약 200미터 하류에 위치해 있었다.〉

〈사진 20〉의 다가산 정상에 보이는 목조의 도리이는 바로 전주에 들어 온 일본인들이 세운 목조의 도리이 그것이다. 일본인들이 초창기 전주에서 거주했던 고사동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러했을 것이다. 사진에 있는 다리는 이 때까지도 사마교라 불렸을 것이다. 조선시대 선너머로 이사 간 향교에 글을 배우러 다니던 선비들이 건넌던 다리라해서 붙여진 이름은 왜란이 끝난 뒤 향교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뒤에도 여전히 선비들의 다리였다. 지금의 신흥학교 자리에 희현당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도립 학교가 있었으니 그 다리의 이름값은 여전했던 것이다.

전주신사 건립은 메이지 천황이 죽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당시 전라북도장관이 이두황을 비롯 지역 유지들이 전주신사 및 공원건설 위원으로 9천여원을 거출하였고, 다가산 부근 1만 1800평 등의 땅을 고사동의 이건호 외 3명이 기부하여 공사에 착수 1914년 10월 완공되었다. 이리하여 다가산 정상에는 신사와 사무소가 건립되고 다가산 밑 광장 현재 천양정 앞에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웅장한 석조 도리이(鳥居)가 세워졌다. <사진 21>에 보이는 웅장한 석조의 도리이는 일본의 조선 침략이 완공되었음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다가산 초입을 딱 하니 가로막고 서있었다.



<사진 21. 다가산 입구에 세워진 석조의 도리이로 1920년대 후반경에 촬영된 모습이다. 당시 일본인이 세운 다가교로 이어지는 도로가 보이며, 도리이 앞쪽 좌우에는 일본 석등이 놓여져 있다.>

이후 이강원, 김도홍, 이준상, 유익환, 문문교, 백인숙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전주신사장위원(全州神社講委員)이 위촉되었다.

1915년 8월 조선총독부가 신사사원규칙을 발표하여 현재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중인 신사, 요배소 등의 창립수속을 밟도록 지시에

따라 전주신사도 1916년 2월 신사창립을 출원하여 9월에 인가를

받았다. 당시 구성된 창립위원 중에는 전주지역의 유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 김영철, 박영래, 신언태, 박기순 등이 바로 그들이다. 신사창립이후 숭경자총대회(崇敬者總代會)가 조직되고 신사를 관리운영하게 되고 인창환, 백남혁, 김봉철 등이 활동하였다.

한편, 일본은 1935년경 이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다. 우선 각 급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한편 이를 거부한 신흥학교, 기전학교를 1937년 폐교시켰다. 일본의 신사참배강요에 대해 천주교는 로마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에 응했으며, 기독교의 경우 역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참배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에서는 남장로파 교회 146개소 신도 1만8천명이 신사참배를 시행하기로 했고, 만경 무주 금산 옹포 삼례 등의 각 교회에서도 전교도의 만장일치로 참배를 결의하기도 했다.

강제적인 신사참배가 계속되자 1939년 전주신사는 신사 확장을 위한 대규모의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총 25만868원 규모의 전주신사 확장을 위해 추가 용지 2만7천평 중 8천평을 미국예수교 남장로파 조선교회유지재단의 협조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지역유지의 기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전주신사는 3만8천6백평에 달하는 거대한 신사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었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중지되었다.

한편, 한벽당 사진을 보면 요월대의 복원이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벽당을 세운 월당 최담은 오목대 남쪽에 집을 짓고 이 여덟 글자를 새겨 도의(道義)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월당 최담의 묘비명에 의하면 그가 71세 때 관직에서 물러나 구계(九溪) 위 옥류동에 한벽당을 지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벽당이 처음 세워진 것은 1416년(태종 16)이 되지 지금부터 589년전의 일이다.

그뒤 한벽당은 월당의 자손들에 의해 대대로 보수를 해 오다가 1684년(숙종 9)에 당시 관찰사였던 이사명이 한벽당에 이어 9동의 작은 층각을 세웠다고 한다. 1733년(영조 9)에는 전주판관 윤성필이 사재를 털어 보수했으며, 1897년(광무 1)에 후손들이 출연하여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월당이 처음 세운 한벽당은 어떤 모습인지, 관찰사 이사명이 증수한 층각은 어떤 모습인지 머리 속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한벽당은 정확하게 한벽당 1동의 건물과 '요월대(邀月臺)'이라 불리는 동편에 있는 조그마한 누각 뿐이다.



〈사진 22〉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한벽당의 모습은 1911년의 것이다(〈사진 22〉). 1912년 일본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전북일일신문사가 발행한 금란 부라는 책에 실린 한벽

당의 모습은 서쪽으로 이어진 제방을 제외하면 아마도 조선초 월당이 세웠을 당시의 풍광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1911년의 한벽당은 중바위 자락 끝 자연 암석위에 세워진 조그만 도도한 모습이었다. 지금과는 달리 요월대는 보이지 않고, 한벽당 1채의 건물 뿐이다. 그리고 사진 속 제방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2층의 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전주향교 앞에 이전 복원한 만화루(萬花樓)이다. 복원되기 이전의 것으로는 유일무이한 만화루의 모습 일 것이다.



〈사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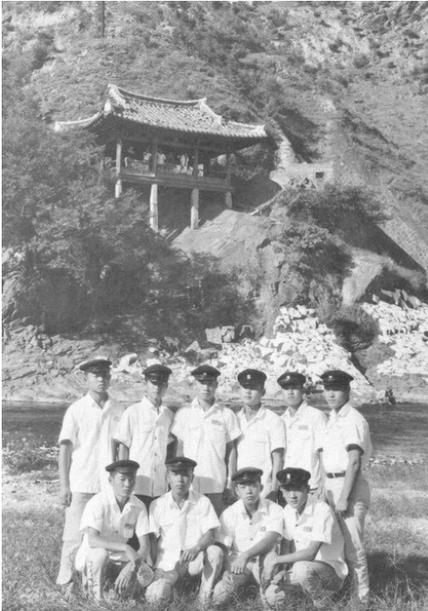


〈사진 24〉

얼마 뒤 한벽당의 동쪽에는 지금의 요월대가 나타나게 된다.(사진 23, 사진 24) 〈사진 23〉과 〈사진 24〉를 보면 한벽당 동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현재 요월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일제시대 당시에도 요월대라 불리웠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사진 23〉과 〈사진 24〉를 가지고 대략이나마 추정해 본다면, 먼저 두 장의 사진 중 한벽당 주위의 나무들을 보면 〈사진 23〉이 앞서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진 23〉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사진 24〉에는 나타나고 있다. 한벽당의 동쪽에서 한벽당과 요월대 사이로 오르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원래 한벽당에 오르는 길은 현재 오모가리집에서 올라가는 서쪽 길 뿐이었다. 한번쯤 한벽당에 가본 사람이라면 한벽당의 동쪽으로 치명자산에 이르는 길이, 원래는 중바위 자락에서 바로 전주천으로 이어지는 풍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동쪽에서 한벽당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라선 철도가 놓이게 되면서 제방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벽굴이 뚫렸기 때문이다.

월당이 낙향해서 도의(道義)를 세우기 위해 힘쓰려 했던 한벽당의 정기가 잘리게 된 것은 바로 〈사진 24〉에 보이는 전라선의 설치



〈사진 25〉

였다. 사진에 철도가 놓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막 터널 공사를 끝낸 뒤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전라선 철길은 이리역에서 삼례, 덕진을 거쳐 현재의 전주시청에 있던 전주역으로 지나 간납대(전 영생고자리)를 자르고 오목대-이목대-한벽굴을 지나 중바위 서쪽아래를 타고 색장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남원간의 철도가 개통된 것이 1931년 10월이 일이므로 〈사진 24〉

는 1920년대 말쯤에 촬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요월대에 세워졌던 건물은 1912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벽당 동쪽에 세워진 이 건물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서져 버렸다고 한다. 1963년에 전주농고 학생들이 한벽당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 25〉를 보면 요월대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에 있는 한벽당 밑 암벽에는 하얀 빨래가 넓게 널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 언제 썬인가 찍었을 이 사진을 보면 한벽당이 몇 곳 안되는 소풍지로서 일제시대 뿐만 아니라 한동안 사랑을 받았고(사진 26), 그리고 빨래터로서의 시민들에게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벽당 옆에는 새롭게 복원된 요월대가 있다. 이 남향으로

지어진 요월대를 이전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 건물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이후 사진자료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요월대(邀月臺)란 달을 맞이하는 곳(건물)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방향은 당연히 달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는 요월대라는 이름과 맞지를 않다. 현재의 요월대가 정확히 언제 복원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월대라 이름 한 이상 건물의 방향과 어긋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요월대의 설치가 조선시대부터인지 알 수 없어서 뒤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한번쯤은 명칭과 건물방향의 부조화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일이다.

3. 사진의 수집은 역사의 복원이다.

전주의 옛 사진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의 일이다. 당시 국립전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 중이던 유리원판들 중에서 전라북도와 관련된 일제강점기의 사진을 모아 『옛 사진 속의 전북』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4년 뒤인 2002년 전주풍남제전위원회에서는 제44회 풍남제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출판된 전북 관련 도서에서 사진을 재정리하여 『전주의 어제와 오늘 展』을 열고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2000년을 전후한 시점에 높아진 근현대 100년에 대한 관심은 『신문으로 본 전주, 전주사람들』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의 출판으로 이어졌고, 2005년도에는 전주시에 보관 중이던 행정사진 5만여 매를 정리하여 DB화하기도 하였다. 이들 사진 중 도시, 물, 길에 관한 사진들을 모아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옛 사진 속 문화풍경, 전북』을 발간하였다.

또한 제5회 전국 강의 날 대회를 앞두고 대회조직위에서 개최한 '장릉 속 전주천 추억찾기' 공모전이 있었으며, 그 결과를 전시회와 소책자로 발간하였다. 이어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숨겨진 시간을 찾아서'라는 1960년대 이전 전주관련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온고을씨가 들려주는 전주이야기" 특별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활발한 사진자료의 수집과 도록의 발간은 전주의 역사를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이전의 단절된 역사를 시각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주성과 전라감영, 경기전, 한벽당 등의 사진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주신사에 관한 사진은 잊혀진 일제의 침탈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아울러 해방 이후 특히 1950년대 이후의 전주에 관한 사진들은 급격한 사회발전 단계에서 전주라는 도시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전주사람들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불과 50~60년 전의 역사이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현대 이후 전주 도시공간의 확대와, 도심 개발의 모습, 전주천변에 있었던 판자촌의 풍경이나 새마을 운동, 문화현상들 예컨대 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퍼레이드를 비롯한 반공시위 등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운동들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가치에 대해 무감각한 편이다. 옛 사진 읽기와 관련해서 시급한 것들은 여전히 '수집'이다. 앨범 속에 갇혀 장릉이나 벽장에 쳐 박혀 있는 사진들을 찾아 모으고, 선별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진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양하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적으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50년대 이후의 사진을 더 찾기 힘들다. 시대적 환경이기도 하겠지만 60년대까지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의 대부분은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의 삶을 이해 할 수 있는 사진을 찾기는 쉽지만은 않다. 사진에 삶을 불어 넣는 것, 어찌 면 장롱을 뒤지는 행위야 말로 역사를 찾는 탐험가의 스타일을 맞볼 수 있을 것이다.